東大新聞

發行人 宋南都 編輯人 崔水善 主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3130~9
本社直通 ㉳8498

每週月曜日發行

總學生會 결산안 通過

一期豫算案 3백50만원

6일, 代議員 임시총회 개최

대의원회 71학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6일오후 1시 1백3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상정된 안건중 70년도 제2기 결산안통과만을 마치고 나머지 71년도 제1기 예산안과 會則改正案件은 오는 6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하지 못한 71년도 제1기 예산안은 대의원회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各單大會長團과 협의한 결과, 총 3백50만원의 예산액을 책정하고 6일 대의원회 통과과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71학년도 제1기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各單大會長의 출석을 요구하는등 논란을 거듭하다가 임시총회를 소집,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것은 單大행사및 수용장비항목의 예산액책정에서 單大會長團과의 타결점을 찾지못한데 기인하였으나, 곧 서로 조정이 이루어져 별다른 차질이 없어 해결되었다.

새로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문제된 單大행사및 수용장비는 1백1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오는 5월8일 개교65주년기념 「東國춘전」 행사비가 1백15만원으로 책정돼 各部항목별 예산중 고액을 차지하고있다.

이번 결산보고에서 밝혀진 各部항목별 지출현황은 다음과같다.

◇총학생회비총액=3백50만원 (지출·3백32만2천3백10원, 잔액 「東國」誌발간보조)

◇各항목별지출현황

▲홍보부=17만5천6백60원▲▲한예부=17만3천2백원▲응원부=6만4천4백원▲▲공보부=6만4천4백원▲▲봉사부=8만2천5백원▲학술연구부=8만원▲농어촌연구부=14만원▲▲동국사상연구회=28만6천원▲▲총회장및 부회장활동비=11만원 ▲단대행사비=70만4천8백원 ▲예비비=1백38만1천7백50원

법회는 첫열일인 5일이 식목일인 관계로 이날로 연기된 것인데, 이날은 9시부터 10시까지 세로 제정된 한글삼귀의·사용서원의 합창연습을 한후 10시부터 11시까지의 奚炳부이사의설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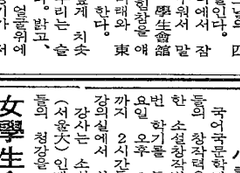
籠球部저조 2勝8敗기록

본교 농구부는 지난23일부터 4월3일까지 연 13일간에걸쳐 장충체육관에서개최한 제7회춘계남녀대학농구연맹전 「골·디그저」에서 처녀출전, 쟁쟁한 실력의 타대학팀을상대로 선전분투하였으나 명지대와 서울대만을 누르고 전적 2승8패의성과를올려 하위에 머물렀다.

초보전인 전통있는 강팀들과 대결 力不足과 「밸웍」불일일 학생회관은 약4천여만원을 들여 국내에서 손꼽히는 내규모의 건물과 완벽한 내부시설을 자랑하는 學生會館을 지난 29일 金興燾총장과 吳法眼상무이사는 각學處長 및 총학생회장단들이 동행한가운데 캠퍼스를 투두 살피고, 곧 着工할 學生會館과 코끼리像 건립 장소를 둘색했다.

이미 여러차례 개교기념일前에 착공할것을 確約한 바 있는 「래머드」 學生會館은 현재 북쪽게시판을 철거한 자리에 (약 1천5백坪두상) 6층건물로세워지게되며 한편 작년부터 추진하여 역시 다가오는 개교기념일식전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코끼리像은 과학관 등편언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碁地造성등 공사 금명간 착공키로 했다.

다시 4月에 젊은 對話 활짝



사진·李春滿 기자

저항의 四月! 그 4월의 金낭랬상은 또다시 잔디위에 쏟아진다. 그위에서 우리들의 對話는 끝없이 번진다. 가지 꽃무늬, 넋萬, 푸른 벤취와 慈悲의 부두와 聖像주변에 우리는 모여, 그날의 四월과 술소리에 귀를기울인다. 잠깐 쉬며, 더러는 앉고 누워서 말한다. 곧 선보일 學生會館과 술기로운 코끼리像의 원칙을 얘기한다. 우리의 젊음과 미래와 東國의 전통을 얘기하고자 한다.

포근한 휴식의 한낮, 높게 치솟는 풀들기의 꼬맹이래 우리는 슬기롭게 꿈을 키우고 있다. 밝고, 때로는 생각하는 우리의 얼굴위에 때때로 그윽한 慈悲의 향기가 서린다.

에서 또 풀뿌리에서 아니 永劫의 호흡을 느낀다. 푸른 벤취와 慈悲의 부두와 聖像주변에 우리는 모여, 그날의 四월과 술소리에 귀를기울인다. 잠깐 쉬며, 더러는 앉고 누워서 말한다. 곧 선보일 學生會館과 술기로운 코끼리像의 원칙을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젊음과 미래와 東國의 전통을 얘기하고자 한다.

포근한 휴식의 한낮, 높게 치솟는 풀들기의 꼬맹이래 우리는 슬기롭게 꿈을 키우고 있다. 밝고, 때로는 생각하는 우리의 얼굴위에 때때로 그윽한 慈悲의 향기가 서린다.

學生會館 位置확정

코끼리像 건립위치도

金總長, 캠퍼스視察

지난 29일 金興燾총장과 吳法眼상무이사는 각學處長 및 총학생회장단들이 동행한가운데 캠퍼스를 투두 살피고, 곧 着工할 學生會館과 코끼리像 건립 장소를 둘색했다.

이미 여러차례 개교기념일前에 착공할것을 確約한 바 있는 「래머드」 學生會館은 현재 북쪽게시판을 철거한 자리에 (약 1천5백坪두상) 6층건물로세워지게되며 한편 작년부터 추진하여 역시 다가오는 개교기념일식전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코끼리像은 과학관 등편언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碁地造성등 공사 금명간 착공키로 했다.

校內에 郵遞局

체신부認可, 15일 開局

총무과에서는 체신부의정식인가를 받아 교내에 「중앙우체국 東大分局」을 오는 15일부터 개설하기로하고 지난 지난 1일부터 석조전전시 「視覺信」사무를 관장하므로서 이제까지 불편을 겪던 체신사무가 신속 활발히 처리되게 된다.

오래전부터 캠퍼스 요망되어오던 이 교내 우체국개설은 이번에 총학생회장단(총회장=南都一)의 건의에 따라 교내 1100여만원을 들여 내부시설에 완벽을 기하고있으며 체신부에서 分局長및 사무원2명을 파견하고 본교에서도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이번 체신업무의 일체를 위해 이번 설치되는 分局은 체신업무의 일체를 일반우체국과 같은 규모로 운영하게 되는데 우편물은 물론 체신저금 체신보험 전신·전화·저금등의각종 與受信사무를 관장하므로서 이제까지 불편을 겪던 체신사무가 신속 활발히 처리되게 된다.

학생들로부터 요망되어오던 이 교내 우체국개설은 이번에 총학생회장(총회장=南都一)의 끈질긴 노력으로 체신부에서 교내에 완벽을 기하고있으며 체신부에서 分局長및 사무원2명을 파견하고 본교에서도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國文科 특강

小說創作法등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창작력을 도울기 위한 소설창작법 특강을 의번 학기를 통해 매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동안 C203강의실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소설가 金光鎬씨(서울大) 인데 많은 학생들의 청강을 바라고있다.

女學生會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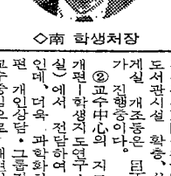
書藝·꽃꽂이등

지난해 11월 꽃꽂이, 아후장강좌를 실시하여 많은 지역사회개발과 각종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게하여 종래의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도록하며, 봉사활동상활을 조장하여 지원및 포상도 실시하겠다.

⑥체육의 진흥=주로 단체球技를 중심으로 長·短期계획을 수립, 침체된 체육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⑦캠교65주년기념 「東國說典」계획=총학생회주최로여 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아래 종래의 교식적인 축제가 아닌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하겠다.

南학생처장



◇南 학생처장

東國의 中興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감에따라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학생복지도에도 보다 효율적인 方案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일 南都泳학생처장은 학사행정과 학생문제의 전반적인 담변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 회견에서는 학생처소관의 학생지도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봉사체제 확립=학생들의 요망사항을 조속히 처리토록하며 학상 「진명한 학생가 되자」라는 캐치프로우워윈을 내걸고 봉사구호를 내걸고 봉사구호로써 신뢰받는 학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공식기구인 총학생회를 통해 「東國우체국」 개설, 도서관시설 확충, 식당·휴게실 개조등은 已下 공사가 진행중이다.

②교수中心의 지도체제로 학생지도연구소(상담실)에서 전담하여 연구중인데, 더욱 과학화하는 한편 개인상담·그룹지도등을 교수·학생간의 대화의 길을 넓히고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

③적극적인 직업보도·직업보도자료(안내책자)를 곧 발간하며 취업희망원도 작하여 적극지원하여 현재 실시중인 經濟大의 예에 따라 大學校 등에 대해 적극 참여하게하여 종래의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도록하며, 봉사활동상활을 조장하여 지원및 포상도 실시하겠다.

④장학제도 강화=현재 지급중인 25개종류의 장학금과 그밖의 三賞등 유지하겠다. 사법고시지구반, 교수중심으로 개편하여 교수·학생간의 대화의 길을 넓히고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

⑤봉사활동의 적극지원=지역사회개발과 각종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게하여 종래의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도록하며, 봉사활동상활을 조장하여 지원및 포상도 실시하겠다.

⑥체육의 진흥=주로 단체球技를 중심으로 長·短期계획을 수립, 침체된 체육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⑦캠교65주년기념 「東國說典」계획=총학생회주최로여 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아래 종래의 교식적인 축제가 아닌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하겠다.

奉仕·指導체제 萬全

奬學制등 當面문제言及

法政大에 사법고시지구반을 개설,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직업보도우원실(안내책자)을 발간하며 취업희망원도 작하여 적극지원하여 현재 실시중인 經濟大의 예에 따라 大學校 등에 대해 적극 참여하게하여 종래의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도록하며, 봉사활동상활을 조장하여 지원및 포상도 실시하겠다.

⑥체육의 진흥=주로 단체球技를 중심으로 長·短期계획을 수립, 침체된 체육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⑦캠교65주년기념 「東國說典」계획=총학생회주최로여 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아래 종래의 교식적인 축제가 아닌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하겠다.

佛敎奬學生 19名

博士과정 呂東賛神父도

1971학년도 각종장학생중 이미 확정발표된 우등 장부대여 5·16장학생에 이어 지난달 12일에치른 선발시험 결과에 따라 불교장학생 19명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불교장학생 수혜자는 선발신청에서 소정의 성적에 달한 학생에겐 전부 혜택을 주었는데, 이중에는 지난 71학년 학위수여식에서 碩士학위를 받은 포탑스神父 呂東賛(본명=로체·트베리에) 등록이 다시 大學院博士학위 코스를 밟고 있는 교수생 19명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다음은불교교장학생명단.

▲呂東賛(대학원 博士과정)▲崔玉姬(日本留學)등 ▲申賢淑(日本留學)등 ▲蔡瀅洙(日本留學)등문▲趙寧姬(日本留學)등문▲安東圭(佛4)▲崔成烈(佛4)▲鄭鎭範(佛4)▲李星輪(佛4)▲金容錫(佛4)▲金容善(佛3)▲李光錠(佛3)▲崔哲煥(佛3)▲刑鎭國(印哲4)▲沈東植(佛2)▲李梵弘(印哲4)▲李台欽(印哲3)▲朴世仁(印哲4)▲손용상(佛4)▲金容善(佛3)▲李光錠(佛3)▲崔哲煥(佛3)▲刑鎭國(印哲4)▲沈東植(佛2)▲李梵弘(印哲4)▲李台欽(印哲3)

行政大學院

행정학연습 강좌

행정대학원은 「行政學 연습」이란 강좌를 개설, 매주금요일오후 8시부터 1시간동안 시청행정인사분야에서 실시한다.

本校 遺蹟조사단

반고사寺址 본격답사

박물관

본교 博物館는 지난해 12월달경 실시한 동인지구 佛蹟답사時 발견한 新羅시대의 大寺址에 본격적인 반고사寺址와 완벽한 遺蹟을 조사를 위한 「울산 반계遺蹟조사단」(단장·黃壽永교수)은 지난달 7일3월의 선구성 7일3월의 선구성 대장·文明大인연구원 관할 예정이며 답사기간중 蔡炳培이사장 金東益총장도 동참할 예정으로 탁본·주변발굴등을 실시할 이번 조사단은 10명으로 선발하며 11일 전원출발하며 李龍範문리대학장과 安啓賢교수도 참가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본교 박물관에서 발견한 유적중 가장 광복할만한 유적으로학계의 큰 관심을 받아 40여명의 학자들이 참관할 예정이다.

植木日 기념植樹

새校門주변등綠化

東國校友會員들도

제26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오전10시 본교에서는 金奉基총장, 奚炳부이사를 비롯한 학처장및 교수 교직원 등 학생다수가 참석한가운데 석조관앞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갖고 교정녹화를 위한 기념植樹를 한다.

이날 학생들은 나무를 심기 전 먼저 잡초를 뽑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등 교정녹화에 앞장서게되며 교수들도 리기다소나무등 70그루의 나무를 교정에 심는다.

한편 동국교우회원 30여명도 이날 장충단공원으로 학우들의 성묘를 실시한다.

新入生歡迎會

8일大運動場

총학생회 학예부가 매년 신입생을 맞아 벌이는 신입생 환영잔치를 중강당에서 가질 계획을 변경, 규모를 늘려 대운동장에서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날 환영잔치는 「장·어롱」, 「신입생長技대회」등 다채롭게 진행될 것인데 MBC의 「청춘만세」프로의 공개방송도 아울러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학예부에서는 7일 오후1시 장기대회를 갖게 된다.

한편 이날 환영회에서는 연신청자 예비심사를 갖게 된다.

장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지난 교정녹화에 앞장서게된 교직원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새校門을 마주하여 세워지게 되는데 이는 70년도 졸업생들의 적축금등을 기금으로 총학생회가 관하의 53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왔다.

(코끼리像 관계記事 3面참

「불타」의 일평을 「如來」라고 한다

「불타」의 일평을 「如來」라고 한다. 그것을 밝아서 「열반」(Nirvana)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래」는 「가장 진실한 길을 걸어서 理想의 세계에 돌아왔다」는 뜻이라고 한다. 「곡 그런 길」(如)길」이란 다른 여러 부처님이 걸어오신 길과 같은 길이라는 뜻이다. 「가장 참된 理想의 세계」라는 것은 달리 「사람의 길」이라고 한다. 「사람의 길을 걸어서 가장 참된 理想世界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더욱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람으로 가장 참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길을 걸어서 가장 참된 사람의 길을 걸어라는 眞理를 가르쳐주신 부처님이 「여래」이다.

「人間界에서 참된 사람의 방자욱은 사라져가고 오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人間復歸」이다. 그리고 奚炳만 늙음은 인간의 문화재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곧 「奚金만늙음」이다. 그리고 奚金만

主觀과 客觀의 數理的 고찰

認識對象과는 函數관계 맺어

所有·經驗量에 좌우

時空間·物質 에너지경우도

金 周 弘 〈工大 電子工學科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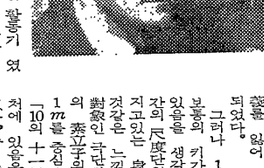
1、概說과 법칙

自然界는 시간과 공간의에 물질, 에너지로써 구성되어 있을 말할것도 없다。그러나 자연계를 대한 인간이 자기의 자연의 인식할때 자기를 중심으로 상으로 인식할때 자기를 자연물의 한 주관적인면과 자기를 하나로 보는 객관적인 面이 있다。그러므로 동일한 물전이나 현상에 대하여서도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에는 큰 차이가 介在함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바다。이 兩者間의 數量的 관계를 고찰하여 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법칙이 존재함을 통찰하고 思考實驗에 의하여 이것을 論證하고자 한다。

모든 量은 언제나 어떠한 인위적인 量과 비교하여 그 量의 크기를 인식하게 되므로 심리적, 즉 주관적인 量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이 基準量은 자기가 현재 소유하거나 경험한 有形無形의 量이 아니될 수 없다。

따라서 주관적인 量의 크기는 언제나 이 기준량과의 比로써 느껴지기 마련이다。여기서 자기가 소유하거나 경험한 有形無形의 객관적인 量을 y라하고 그 객관적인 變化量을 dy라하면 자기가 느껴진 량의 변화 dx는 dy/y에 비례한 량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식으로 표시하면 別表 ①번과 같다。(단K는 比例常數로 個性에 따라 달라진)



다 하고 그가 가장 큰 활동기였던 30세부터 31세사이의 1년간을 객관적인 1년과 일치하도록 比例常數 K를 정한다고 假定한다。즉 30세를 기준으로 한 그 사람의 심리학적 (주관적) 인 수명은 別表중 ④번과 같다。

즉 주관적시간의 길이와 객관적시간의 길이와 사이에 一數關係를 어디에 定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주관적 수명을 수식으로 결정할수가 있다。

2、시간에 對해

天體의 운동을 기준으로한 共通의 시간은 불변 객관적 시간의 길이 (즉 量) 은 개개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러나 자기자신이 느껴지는 시간 즉 심리학적시간을 換言하여보면 주관적인 시간은 그 量에 있어서 前者와는 큰 差異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예를 들어보면 어떨적의 1년간은 나이가 많을때의 1년간에 비하여 대단히 길게 느껴진다。이것은 주관적 시간의 길이가 객관적 시간의 길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才된 사람이 느껴지는 1년간의 길이는 (즉dx는) 자기가 살아온 또는 경험한 시간 즉, 10년간의 1/50분의1로 느껴지며 (y) 의 10분의1로 느끼는 1년간의 사람이 느끼는 1년간의 50세의 사람이 所待한 즉, 살아온 년에 비하여 짧게인식되게 되므로 50길 분지로 느껴질 것이다。즉 式①과 같다。

여기서 K는 개인차를 허용한 比例常數로 본다。여기서 다음과 같은 假定下에 심리적인 평균수명을 算出하여 보자。

즉 어느사람이 60세에 사망하였을 때 이 평균 수명은 다음과 같다。

$$\frac{1}{50}\times 10 + \frac{1}{50}\times 10 + \frac{1}{50}\times 30 = 1.2$$

즉 인간의 주관적인 수명은 객관적 시간의 1.2배가 된다。

3、공간에 對해

길이에 對한 단위로서 m는 지구의 둘레의 44萬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意義를 알아 m原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1m를 고찰할때 인간의 보통의 키가 1m부터 2m이상에 있음을 생각할때 결국 객관적 공간의 尺度단위 즉 m도 인간이 가지고있는 身體의 길이에서 출발된 것같은 느낌을 주며 인간의 認識對象인 극단하게 큰 등불이나 極微의 莠米분자의 크기등을 생각할때 1m를 중심으로 한 「10의 十一30乘」근처에 있음을 알수 있다。즉 주관적길이인 단위 m가 바수학검과 객관적 量의 일치점을 우리의 身의 「長근칙에 놓는 점」이에서 兩者를 근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別表〈數式 例〉

① $\frac{dy}{y} = kdx$

② $\log y = kx$

③ $y = e^{kx}$

④ $\log 31 - \log 30 = k$

故로 $\log \frac{31}{30} = k$

故로 $\log 60 = \log \frac{31}{30} \triangle x$

($\triangle x$는 心理學的 變命)

여기서 $\triangle x = \frac{\log 60}{\log \frac{31}{30}}$

4、物質에 대해

물질이나 에너지의 가치를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金錢이다。여기서는 이 금전으로 有形인 物質이나 無形인 「에너지」를 대량키로 한다。

「錢者의 一燈 富者의 百燈」이라는 말이있다。이것은 심리학적 즉 주관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재산이 甲과 1천만원의 소유자인 乙이 10만원씩 공동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할때 甲의 견지에서 볼때 即 주관적 투자액은 甲이 소유한 資産 (y) 즉 1천만원에 대한 10만 (dy) 원인 그 比 dy/y=1백분의 1=dx가 주관적인 투자액이 되고 z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10분의 1의 주관적 투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볼때 투자액은 10萬원 등일하지만 주관적 투자액은 乙이 甲의 10배를 한 결과로 된다。

즉 ①~③식이 성립함을 의미한다。국가간의 전쟁에 있어서 동원된 物力과 人力의 國家目盤에서 본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가가 소유한 物力과 人力이 기준이 되어 그 比로써 표시하게 된다。

5、결론

이상 論證한 바와같이 時空間과 물질「에너지」에 이른 유형 무형의 우리의 인지대상이 되는 全體領域에 걸쳐 주관과 객관의 量的관계는 對數極數 또는 指數極數의 함수관계가 성립하며 一方의 타방의 答像으로서 표현되며 이들의 함수는 주관적 量이 언제나 자기가 소유 또는 경험한 量을 기준으로하여 計量된 심리현상과 자연간에는 엄연한 數理的법칙이 존재함을 상기한 論證을 통하여 명백히 한다。

나무의 세 모습

元 義 範 〈佛大 印哲科 교수〉

「나무는 평의 詩이며 향기이다」라는 말이 있다。나무는 국토보안이나 경제적인 산업면에서뿐 아니라 국민보건, 리크레이션에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도시의 매머드化, 소음化에서 우리는 싱그런 자연을 그리게 되며 나무는 이같은 갈증을 적시어주는 드링크제이다。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主題로 한 에세이 2편을 엮어본다。

이제 나를 잘아 잘수 신는거요。맛나게 잘주시오。지글 지글 볶고기로 굽던지 꼬치 꼬치 삼적으로 꿰어서 잘숫덩지 뜨끈뜨끈 설농탕 곰탕으로 우려서 잘숫을지 마음대로 낼잡아 잘숫을지오。장조림 볶조림으로 하여 두고 두고 내 너분 다리 실낭게이 오리 오리 가닥 가닥 찢어서도 잘숫고 귀여운 아기에게 먹여도 좋을거요。네개의 발목인랑 동용강용강 짤라서 족탕으로 따로 하여 아리탕고개 열루고개 구비구비 넘어넘어 당신이 즐겨 등기는 기타줄처럼 당신이 즐거는 바이올린 줄처럼 또 당신의 애간 장을 피아노건반처럼 댕강댕강 소리내며 당신의 멱에를 메고 끌고 뛰기도 줄은 힘줄을 이용전통전 아교줄처럼 녹아서 오금오금 잔뼈들이 구슬처럼 쏟아져 나오도록 폭폭 삶아서 초장 파잔장에 맛나게 묵덜미 갈 잡아 비수 손이 정지스칼 숫고 이도 줄지요。어서 잘숫고 오래 살고 극락 천당 다시오。가죽은 골 뚜구로 지으시고 권총집도 만드시오。당신가 죽대신 손잡갑도 줄지요。

낳더러 소라고 하지마시오。낳더러 짱록 깊이 뿌리 박고서서 꼼짝 못하게 하여 서슬지 말고 쌀록 쌀록 신나게도 잘라 버리시오。붙이외다。

두들겨 주시오。피나게 두들겨 주시오。새벽종소리도 나기 전에 하늘과 땅이 쩡쩡 울리도록 두들겨 주시오。두들겨 주시오。당신이 두들겨 주시오。당신 이대로는 나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이제 말라 니까。뿌리 서서 견디어야 합니다。뿌리 책로 파서관 잣집 아궁이에 태워도 좋고 밑씻한 허리를 놀신 하게 끊어서 부잣집 대청 다루로 올려 놓고 날더러 천년 만년 전더란 말고 버티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 당해야 할 빨아 올린 진짬 만큼 그 신이 불을 주시나요。큰 일 작은일 일새마다 알알히 하늘을 향해 창조이래로 튀어나오는 熱 암맹이를 받아먹는 내 몸이 행여 달이지요。이래서 나를 이 토록 가꾸어 주시나요。누구를 위하여 받는 저 찬란한 햇빛인지 누구를 위하여 이렇이 타서 제가 됩니까。이래도 꼼짝 않고 버티고 서서 나를 이 토록 가꾸어 주시나요。누구를 위하여 받는 저 찬란한 햇빛인지 누구를 위하여 이렇이 타서 제가 됩니까。이래도 꼼짝 않고 버티고 서서 나를 이 토록 가꾸어 주시나요。

나 말라 시들어 죽을까 염려되어 물을 주시나요。아예 주호라도 나를 위하여 물을 주신다고는 생각마시오。마을대로 서서 서슬치 말고 쌀록 쌀록 신나게 잘라 버리시요。꽃밭은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있으니까요。

당신 눈에만 드신다면 슬쩍 팔 다리 허리 할것없이 통체로 뽑아서 빨아 올린 그 창에 깔고 당신만은 마른 발로 밟고다니시오。

毛細根이 大地를 녹여서 나를 우러러 당해야 할 그 날이 말라 당신이 불을 주시나요。큰 일 작은일 일새마다 알알히 하늘을 향해 창조이래로 튀어나오는 熱 암맹이를 받아먹는 내 몸이 행여 달이지요。이래서 나를 이 토록 가꾸어 주시나요。누구를 위하여 받는 저 찬란한 햇빛인지 누구를 위하여 이렇이 타서 제가 됩니까。이래도 꼼짝 않고 버티고 서서 나를 이 토록 가꾸어 주시나요。

吳 碩 奎 〈文理大 영문학과 교수〉

나무와 교육

피로에 지쳐 심신의 잠을 되찾을까。뭔자의 나단하는 隊商들이 생이숫 에 못지않으리라。거리를 그들에게 청청한 지나나가 부러진 가로수 나 혹은 그 나무들이 뽑는 금하교의 교육적 등장은 는 오아시스에 다달았을 한원안팎에 서있는 나무 그들은 얼마나 生氣 에 따라서 결정지어도 무 허져있는 것을 보게되면 관하리라 생각한다。 그러한기준을 대하에 당 장 적용해본다면 서울시 내 각대학은 대체로 대학이 형편없을 정도로 등 한시되어 볼 모양이없다。 해방직후만해도 해뿔은 향 학 「캠퍼스」의 나무의 종류, 크기, 數, 정리, 보호 등에서 평가월수도 있을 것같다。즉 좋은 대학이라고 世評받고있는 대학일수록 많은 良木들이 갈 가꾸어져 서있다는 말이 다。

그럼에 나무에 관한 우리대학의 실정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식목 일 현재없을 정도로 등 한시되어 볼 모양이없다。 해방직후만해도 해뿔은 향 기가 치밀어 오른다, 시골로 여행 나가 벌거숭이 山을 처다볼때면 나의 머리는 어부워진다。어쩌면 저렇게나 나무를 깎아먹는가 하고 잔인한 민심 의 적주마저 하게 되고, 山林을 보호관리 못하는 정치에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그러하여 조국의산 림을 뿌리채 뽑아내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보기도 한다。국민 스스로의 환경이 이러한 자연환경이 되는 국토를 상상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다。

여기서는 이 금전으로 有形인 物質이나 無形인 「에너지」를 대량키로 한다。

「錢者의 一燈 富者의 百燈」이라는 말이있다。이것은 심리학적 즉 주관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재산이 甲과 1천만원의 소유자인 乙이 10만원씩 공동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할때 甲의 견지에서 볼때 即 주관적 투자액은 甲이 소유한 資産 (y) 즉 1천만원에 대한 10만 (dy) 원인 그 比 dy/y=1백분의 1=dx가 주관적인 투자액이 되고 z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10분의 1의 주관적 투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볼때 투자액은 10萬원 등일하지만 주관적 투자액은 乙이 甲의 10배를 한 결과로 된다。

즉 ①~③식이 성립함을 의미한다。국가간의 전쟁에 있어서 동원된 物力과 人力의 國家目盤에서 본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가가 소유한 物力과 人力이 기준이 되어 그 比로써 표시하게 된다。

이상 論證한 바와같이 時空間과 물질「에너지」에 이른 유형 무형의 우리의 인지대상이 되는 全體領域에 걸쳐 주관과 객관의 量的관계는 對數極數 또는 指數極數의 함수관계가 성립하며 一方의 타방의 答像으로서 표현되며 이들의 함수는 주관적 量이 언제나 자기가 소유 또는 경험한 量을 기준으로하여 計量된 심리현상과 자연간에는 엄연한 數理的법칙이 존재함을 상기한 論證을 통하여 명백히 한다。

洪 庭 植 〈佛大 佛敎科 교수〉

植木하는 마음과 愛國心

社說

우리 나라는 태초부터 은혜로운 땅—조물주가 아시아 대륙을 치장하기 위하여 자연의 갖가지 자료를 한 자리에 모두 놓은 땅—비록 22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는 반도지만, 지구상에 있는 자연의 造化와 調和가 오밀조밀하게 배치된 땅—오만두 한번 금강산을 보고지고 一顧生高麗國 하여 一見金剛山호만—하고 읊은 이유를 알만도 하다。山이 山을 낳아 山과 山으로 이어진 나라—그래서 檀國은 국토의 67%를 山地가 차지 하였으니, 불멘 金剛, 여름엔 蓬萊, 가을엔 楓岳, 겨울엔 皆骨이라고 불리우는 천하의 명산이요 지상의 장관이요, 세계의 신비나 뽐을 법도 하지 않은가。

본시 山이 아름다우려면 나무가 아름다워야 하고 또 숲이 아름다우려면 물이 아름다우려면 이를 반영하고 또 조명하는 大氣와 하늘이 아름다워야 하나니 선택된 檀國의 자연은 하늘과 대기와 물과 숲과 山들이 곱고루 합해 어울려 이룩된 것이 분명하다。한데 山도 물도 하늘도 人間의 힘으로는 어떻게할수도 없는 것이 있는 것이란고 할수있지만 그저 주어진 것이란고 할수있지만 나무와 숲만은 경우가 다르다。첫째 나무는 생겨나 있는 것대로를 지키고 가꾸어야 하고 둘째 씨부리고 심고 북돋아서 넓히고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자고로 檀國은 山岳國家로서의 면모와 자립을 지녀온 터인데, 오늘은 어떠한가。하늘이 골라 주고, 선조가 물려줄 금수강산이 뒤바뀌어, 焦土江山이 되어버렸으니, 후예들은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랴。창조하지도 개발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은 채, 천생까지 얻치고 덮쳐서 화려강산은 어디가고 形骸江山만 남은경과가 되었으니, 차라리 平原만도 못하고 황무지만도 못하지 아니 한가。하은 우리를 버리지않았는가 사람들이 힘쓰지 아니 하여 이 모양이 되었느니, 대체 누구를 탓하랴。그 누구의 의지와 지성을 한 그루의 나무에 깃하고 호소하는 달—그래서 4월은 젊은이의 달이며 大學生의 달이되는 것인지도 모른다。10년 전의 한국 대학생은 蓬萊라는 이름 밑에 피흘리고 그 위에 나라의 나무〉를 심었지만 오늘의 대학생은 피로 물들인땅위에 나무의나무속에 젊음을 심어야한다。한 그루의나무속에 젊음의 벅찬가슴과 사나운 의지가 솟고 그 날의 도약력 만들의애국심들심어야 하기 때문이다。형과삼촌들을 위해대학생들은 오늘 그이들의 뜻이 다져져야하고 그들이 심어 놓은 것을 대신 가꾸어 주어야 한다。잔인한 달이면 한국의 4월은 이제 부성한 4월이 되고, 내일 더욱 자랑 스럽고 안락로운 4월이 되어야겠다。그리고 나무를 심고 조국의 환한 앞날을 위해 나무를 심자。이로써 작자의 매년 이 글이 「生의 宣戰」에서 서양의 문명이는 城壁속에서 생겨나고, 인도의 그것은 우주와 인간이 합일한 경지에서 싹텄다고 했다。 확한는 숲속에서 인간이 생겨나고, 인도의 그것은 우주와 인간이 합일한 경지에서 싹텄다고 했다。숲이 있어야 만 가지 동물이 서식하고 인간의 정신이 풍요해 진다。한사람이 한 그루씩 심어 놓기는 쉬운 일이지만 그 나무들이 모두 울창한 숲을 이룰때, 그 싹은 훨씬 크고, 또한 훨씬 보람있는 것이 아니랴。 처럼 자라서 그 키를 넘게 되고, 巨木들이 숲을 이룰때 그 싹은 훨씬 크고, 또한 훨씬 보람있는 것이 아니랴。 국토를 매우면 강산은 푸르러지고 물은 맑아 하늘은 더욱 푸르러 진다。 이 글은 「生의 宣戰」에서 서양의 문명이는 城壁속에서

新聞의 自由와 독립

「슬로건」으로 본 新聞週間

○… 4월7일은 제15회 신문의 날, 최근10년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는 크게 달라졌다. 정치경…○
○…제사회문화등 여러 部面이 그러했듯이 言論界또한질적 變化가 일어났음이 사실이다. …○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계에서 그때마다 큰 이슈로서 내걸었던 신문투간 「슬로건」을 더듬어 …○
○…보면서 지난10년동안의 한국신문 변천과 과제를 살펴본다.

온갖 言論은 口號만 살아 있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으로는 「漢城旬報」와 「독립신문」을 들고 있다. 漢城旬報와 독립신문은 韓末의 개화기에 民權사상에 입각한 근대적 민족주의와 과학사상을 배경으로 삼는 한편, 外勢로 부터의 主權확립을 주창함으로써 민중의 지도적 열할을 크게 담당해왔다. 특히 한국의 言論史에서 빼놓을 수없는 독립신문의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언론의 구장이 돼오고 있다.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지적식이나 수단으로서 신문의 독립이 보다 소중했던 것이다. 이와같은신문의 독립이 없는가를 냉정히 반성하고 자아비판을 가하기에 진력해온것이 기자 신념이 필요한 이상으로 안으로는 더욱 기개와 성실한 인간성이 필요했고, 또전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신문이 필요하단는 것을 스스로자각한 것이다.

◇신문의금지 (제10회)
신문이 신문으로서의 궁지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위선과 사악을 쓸어없애면서 부강한 나라와 유복한 사회발전을 추진케 하는 지도성을 충분히발휘하는데서만이 신문의 권위는, 마음속의 충성에서 성실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조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행에 조심하자』는 한 경제대학생의 영장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의 공정 (제11회)
신문은 「정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차한 잔 나눈 여학생이 섞를 찬 것이다. 그러나 「우리 東大생은 어려운 문제를 자신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대학생활은 즐겁기만」하단다. 이들은 특별한 혜택(장학금지급, 교련면제 등)을 주고 있는 대학달국에 감사하면서 「더욱 노력하여 훌륭한 대학생이 되자」고 다짐한다.

◇나라와 겨레와 함께 뻗는 신문 (제14회)
70년대 초두인 7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大躍을 이룩하여 민족부흥의 성③중요행사때는 지체운동의 정신을 드높일 일경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끼리像은 솔동국인에게 뚜렷한 지표가 되어 「코끼리東國」의 기상을 크게 떨칠것이 기대된다. 〈均〉

權力作用「알權利」저해
言論界 스스로 自我비판도

난 1957년 독립신문 창간일인 4월7일을 「신문의 날」로, 이날을 전후한 1주일을 신문투간으로 정하고 언론과 국민과의 유대를 위한 각종 행사를 벌여왔다.

행사가운데서도 주요 촛점은 신문투간 슬로건을 내걸고 그때그때마다 언론계와 신문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투쟁할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한편 자기 스스로에게도 비판을 가하는신문인들의 새로운 자세정립이었다.

이런 뜻에서도 신문투간 슬로건은 당시의 정권이나 사회등 내외의 상황을 短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문투간 슬로건을 정식으로 설정하고 언론인들이 스스 행동목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제3회 신문의 날 때부터였다.

◇言論의 自由 (제3회)
언론이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존재하는여 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더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가 國體를 바꾼이래 최악의 독재가 행해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신문이 모든 권력과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누리기가어려웠다. 官權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다. 筆禍사건이나 신문인들에 대한 억압과 폭행이 비일비재였고, 신문인이 아니라 일반 민중마저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통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시기에 한국의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절감하였으며 신문의 날을 맞이 처음으로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집약, 슬로건으로 제정하였다.

◇惡法의 철폐 (제4회)
1960년은 4·19가 일어났던 분노의 해였다. 정의와 順理앞에서는 아무리 억센 독재와 카리스마도 결코 그 수명이 길 수는 없었으며 기존의 악법들이 도태되어갔다.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었던 악법이 언론인들의 투쟁의 的이 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의 악법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기 간행물 허가정지」에 관한것과 「공보처 발행물 및 광고료 규정」이었다.

「정기간행물 허가 정지법」은 당시 用紙조달의 급박한 사정을 벌자하여 정기간행물의 허가를 수시로 정지시켰으며 허가가 자동취소될 수 있는 올가미 법규」를 만들어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불위」를 조성하여 그들을 스스로의자각을 일깨워갔다. 기보적으로 권력에 반항하는政論的 언론으로만 내놓아간 그자의 신문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었던것 일을 알수있다.

◇신문의독립 (제7회)
신문이 정부와의 力學관계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부터였다.

그래서 「신문의 책임」을 느끼고 「불위」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자각을 일깨워갔다. 기보적으로 권력에 반항하는政論的 언론으로만 내놓아간 그자의 신문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었던것 일을 알수있다.

◇신문의품위 (제6회)
61년도 부터는 긴장과 생경한 분위기속에서나마 사회의 질서가 잡히기시작했고 정치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이제까지 확정권적 투쟁을 벌여오던 언론계에서도 이때 부터는 내부로 눈을 돌렸음을 알수있다.

그때 「신문의 책임」을 다무 직유시켰던 것이다.

잔행물의 등록제만해도 큰규제를 받던 터에 허가 또는 정지의 법규는 사실 악법중에 악법이었다. 「공보처 발행물 발매 및 광고료규정」에서도 정부관리 기업체나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업자에게만 모든 간행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언론 탄압에 있어서는 허가정지제와 함께 악랄을 극한 법규였다. 이법은 63년 9월에 폐지되었다.

◇신문의품위 (제6회)
61년도 부터는 긴장과 생경한 분위기속에서나마 사회의 질서가 잡히기시작했고 정치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이제까지 확정권적 투쟁을 벌여오던 언론계에서도 이때 부터는 내부로 눈을 돌렸음을 알수있다.

그래서 「신문의 책임」을 다무 직유시켰던 것이다.

잔행물의 등록제만해도 큰규제를 받던 터에 허가 또는 정지의 법규는 사실 악법중에 악법이었다. 「공보처 발행물 발매 및 광고료규정」에서도 정부관리 기업체나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업자에게만 모든 간행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언론 탄압에 있어서는 허가정지제와 함께 악랄을 극한 법규였다. 이법은 63년 9월에 폐지되었다.

◇신문의책임 (제5회)

◇신문의 품위 (제6회)

◇신문의 공정 (제7회)

◇신문의 自主 (제13회)

◇신문의 自由 (제14회)

◇言論의 단결 (제15회)

◇言論의 자율 (제16회)

◇신문의 使命 (제17회)

◇신문의 公正 (제18회)

◇신문의 自主 (제19회)

◇신문의 自由 (제20회)

◇신문의 自主 (제21회)

◇신문의 自由 (제22회)

◇신문의 自主 (제23회)

◇신문의 自由 (제24회)

◇신문의 自主 (제25회)

◇신문의 自由 (제26회)

◇신문의 自主 (제27회)

◇신문의 自由 (제28회)

◇신문의 自主 (제29회)

◇신문의 自由

詩 뮤마지스 (IV) 방석준

갈잎의 신경 위에 바람은
목선 피를 분다.
떠돌이는 은나비에 들려
모래벌을 서걱인다.
腦의 갈피에서 불꽃은 펼력이고
물옛새 위를 건너오는 공포
의식의 궤도를 벗어 나가는
흑장미의 두 눈은 출렁이고
내 어깨 위로 떨리던 별
찬란한 이슬방울을 뿌린다.」
관절이 접히는 셀로판紙의
풀잎 무늬가 흔들리고
활활 타 오르는 길을 속에서
빗소리는 分娩을 서두른다.」
投網에 얽히는 티코친
핏무성이의 의복이 찢기는데
밤은 혀를 휘두르고
두너지는 문동지의 濟溺위에
떼지어 밀려 오는 맨발들
醉하여 비틀거리는 塔 위에
진눈깨비 퍼붓고
肋骨에 추위는 번뜩인다.」
창문을 잡아먹는 빗줄기는
뜯겨 나가는 책장 위의 돌혹
不眠은 잠잎의 窓을 제키고
黑幾의 하늘 위에 불려 가는
동승계에서 술잔을 기울인다
잎광으로 파도를 복어 울리고
피율음의 體鏡 위에 바람은
열린 문짝들을 부순다.

〈國文科〉

數學과 自然科學의 함수관계

□조 갑 환□

수학,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는다. 수학보다는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수학과 자연과학과는 긴밀한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수학이 없이는 자연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며 자연과학의 발달이 없이는 우리들 인간사회는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인간생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해서는 인식해야 수학의 중요성을 수학의 발달은 자연과학에 의하여 어떻게 촉진되어 왔으며 역사는 자연과학이 어떻게 수학을 발전시켰는가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

자연과학의 필요는 수학을 발달시키고 자연과학의 발달을 도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른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알게되며 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현상에 대하여 함수관계가 나타날을 알게 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자연과학의 발달과 수학의 발달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어느 한쪽의 발달은 다른 한쪽의 발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에 있어서 이론적 발전은 물리학에 나타나는 수학적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자연과학은 중대한 역할을 하나 수학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나 물체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수학적 표현은 처째 자연과학의 요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에서는 수학의 발전이 주로 인간의 이성에 內在의한 것이 극히 많다.

그러나 이와같은 응용에 무관계인 수학의 발전도 역시 자연과학에 대하여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들이 여하한 수학적 체계가 자연과학에 응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공상적이고 추상적인 순수한 물리학의 일상생활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연구의 결과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이 받은 혜택으로 자연과학에서 수학을 응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에게서 말못하는 벙어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수학적 표현은 처째 事物의 성질을 정밀명확하게 記述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말은 빈약하여 도저히 정밀한 표현을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수학적 관계가 있는 것에는 무엇인가 내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관계를 아는것은 믿으나 수학적 관계를 아는것은 개개의 사물 또는 현상의 수학적 표현을 가지지 않으 이것도 전혀 수학적 표현의 덕이다. 케플러가 발견한것과 유성과 태양을 촛점으로 하는 타원상을 운행하는 것은 별의 위치가 수학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성이 태양을 하나의 촛점으로 하는 타원상을 운행하는 것과 유성의 주기다는 것과 유성의 주기는 제가 장편이 나온데요, 진짜로 미쓰·남 보고 그래서 인상깊은 작품은 「고독」」「내일을 향해 「우리에게 내일은없다」」「이유없는 반항」」 「싸라」「이유없는 반항」」 강원도 삼척출신 (98573) 에 현주소 버지 박영진(56세)씨의 次男, 중2때 상경해 서 학교를 들어가게된다. 자기하게 제가꿈의 장식을하고 이름도 이국적인 상 점들, 그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종 레코드가게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이 들려오고 빵…찍…하고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음과 소리를 합해보면 내자신 興國에 와있는 듯 착각이 일어나고 만다. 그 연변에 깔린 음식점과 술집들을 지나노라면 「어서 옵쇼」하고 묘하게들려오는 허스키의 음성, 열굴을 들어보면 사춘기도 채지 나지않은 조그만 소년이 달걀 알고나면 더욱묘한 감정에 빠진다.

또 행상들의 들들이에서 나를 놀라게하는 것은 그들 특유의 商的 매력을 가지고있는 것에서다. 채소, 과일 생선장수 어느것 한것없이 그들대로의 고유언어를 사용하는 점 보게된다. 또리드리칼하게 두드리는 엿장수의 가위소리, 청소부의 종소리 애당초 큰 북 작은북 실지어는 나팔까지 동원해 북작대는 약장수를 보면 우스워 지기까지한다. 새까맣게 끄름을 뒤집어 쓴 인들이 굴뚝소제를 한다는걸 알고 나면 다시금 놀라게된다. 굴뚝과 짝, 아무래도 어울 주고 받으며 서로 도움 의 발달은 다른 한쪽 의 발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에 있어서 이론적 발전은 물리학에 나타나는 수학적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자연과학은 중대한 역할을 하나 수학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나 물체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수학적 표현은 처째 事物의 성질을 정밀명확하게 記述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말은 빈약하여 도저히 정밀한 표현을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수학적 관계가 있는 것에는 무엇인가 내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관계를 아는것은 믿으나 수학적 관계를 아는것은 개개의 사물 또는 현상의 수학적 표현을 가지지 않으 이것도 전혀 수학적 표현의 덕이다. 케플러가 발견한것과 유성과 태양을 촛점으로 하는 타원상을 운행하는 것은 별의 위치가 수학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성이 태양을 하나의 촛점으로 하는 타원상을 운행하는 것과 유성의 주기다는 것과 유성의 주기는 제가 장편이 나온데요, 진짜로 미쓰·남 보고 그래서 인상깊은 작품은 「고독」」「내일을 향해 「우리에게 내일은없다」」「이유없는 반항」」 「싸라」「이유없는 반항」」 강원도 삼척출신 (98573) 에 현주소 버지 박영진(56세)씨의 次男, 중2때 상경해 서 학교를 들어가게된다. 자기하게 제가꿈의 장식을하고 이름도 이국적인 상 점들, 그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종 레코드가게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이 들려오고 빵…찍…하고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음과 소리를 합해보면 내자신 興國에 와있는 듯 착각이 일어나고 만다. 그 연변에 깔린 음식점과 술집들을 지나노라면 「어서 옵쇼」하고 묘하게들려오는 허스키의 음성, 열굴을 들어보면 사춘기도 채지 나지않은 조그만 소년이 달걀 알고나면 더욱묘한 감정에 빠진다.

話題의 人物

「첫情」主演으로 데뷰한 시원한 마스크에 세련된 演技자랑

★데뷰作 「첫情」에서 熱演하고있는 박준성同門。(左)

朴準成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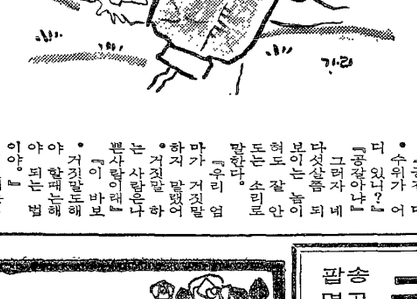
退영화 「첫情」의 남주인공으로 데뷰, 無名의 新人에서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되었던 朴準成同門은 演技人답게 무척 세련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66년 大東商高를 졸업하고 「예술이 알고싶어」 본교 演興科에 입학, 70년3월에 TBC탤렌트로 영화계 데뷰의 기반을 닦던 중, 우연히 반도호텔커피숍에서 남정임어머니에 의해 발견돼 즉석 픽업된것이 경력。(今年졸업) 부족지 시원한 마스크다。

『졸업공연인 「수전노」의 아들역이 제 演技공부에 큰 도움이 됐읍니다。 있갈 작품이지요。 新人으로써 60년 활영에 카트 한번없어 기적이라고 말할 평합니다。 그러나 試驗會에 나가서 영화를 보니까 연기에대해 불만이 많았읍니다。 이 불만이 연기의 成長을 의미한다면 다행이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 같읍니다。 이제 활영이 끝났으니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뿐입니다。』

「流星의 타원운행도 數學的 原子物理學에 數學의 힘」



『제임스·딘』이 죽어 지금도 『아랑·드롱』의 팬, 그래서 인상깊은 작품은 「고독」」「내일을 향해 「우리에게 내일은없다」」「이유없는 반항」」 「싸라」「이유없는 반항」」 강원도 삼척출신 (98573) 에 현주소 버지 박영진(56세)씨의 次男, 중2때 상경해 서 학교를 들어가게된다. 자기하게 제가꿈의 장식을하고 이름도 이국적인 상 점들, 그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종 레코드가게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이 들려오고 빵…찍…하고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음과 소리를 합해보면 내자신 興國에 와있는 듯 착각이 일어나고 만다. 그 연변에 깔린 음식점과 술집들을 지나노라면 「어서 옵쇼」하고 묘하게들려오는 허스키의 음성, 열굴을 들어보면 사춘기도 채지 나지않은 조그만 소년이 달걀 알고나면 더욱묘한 감정에 빠진다.

都市의 抒情

최 철 환

나는 東國大學校를 다니게 된 후 清溪川에서 뻐스를 내려 世運商街를 지나 어떻게 우연히 읽게된 보들레르의 小散文詩集 「빠리의 憂鬱」의 序文에서 다음을 읽었다.

『친애하는 친구여。 「유리장수」의 날카로운 고함소리를 한편의 歌曲으로 나타내보고, 거리의 자욱한 안개를 거쳐 다락방까지 울리어오는 그 고함소리의 모든 서글픈 암시를 한편의 서정적인 散文으로 표현해보려고 한 적이없었던가』

그가 序文에서 말한대로 이散文詩集에는 都市가 우리 人間에게 주는 여러가지 법례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형성해놓은 것이다。

사실 우리도 近代化가 都市에 가져오는 어쩔수 없는 여러 현상에서 보들레르가 그나지도 사랑한 「빠리」를 섬세하게 영감에 사로 잡히어 뼈에 사무치게 詩를 썼을것이 이란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즉거슬려울라 退溪路로해서 학교를 들어가게된다。 아기 자기하게 제가꿈의 장식을하고 이름도 이국적인 상 점들, 그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종 레코드가게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이 들려오고 빵…찍…하고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음과 소리를 합해보면 내자신 興國에 와있는 듯 착각이 일어나고 만다. 그 연변에 깔린 음식점과 술집들을 지나노라면 「어서 옵쇼」하고 묘하게들려오는 허스키의 음성, 열굴을 들어보면 사춘기도 채지 나지않은 조그만 소년이 달걀 알고나면 더욱묘한 감정에 빠진다.

또 행상들의 들들이에서 나를 놀라게하는 것은 그들 특유의 商的 매력을 가지고있는 것에서다。 채소, 과일 생선장수 어느것 한것없이 그들대로의 고유언어를 사용하는 점 보게된다. 또리드리칼하게 두드리는 엿장수의 가위소리, 청소부의 종소리 애당초 큰 북 작은북 실지어는 나팔까지 동원해 북작대는 약장수를 보면 우스워 지기까지한다. 새까맣게 끄름을 뒤집어 쓴 인들이 굴뚝소제를 한다는걸 알고 나면 다시금 놀라게된다. 굴뚝과 짝, 아무래도 어울 주고 받으며 서로 도움 의 발달은 다른 한쪽 의 발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에 있어서 이론적 발전은 물리학에 나타나는 수학적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자연과학은 중대한 역할을 하나 수학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나 물체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수학적 표현은 처째 事物의 성질을 정밀명확하게 記述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말은 빈약하여 도저히 정밀한 표현을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수학적 관계가 있는 것에는 무엇인가 내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관계를 아는것은 믿으나 수학적 관계를 아는것은 개개의 사물 또는 현상의 수학적 표현을 가지지 않으 이것도 전혀 수학적 표현의 덕이다. 케플러가 발견한것과 유성과 태양을 촛점으로 하는 타원상을 운행하는 것은 별의 위치가 수학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성이 태양을 하나의 촛점으로 하는 타원상을 운행하는 것과 유성의 주기다는 것과 유성의 주기는 제가 장편이 나온데요, 진짜로 미쓰·남 보고 그래서 인상깊은 작품은 「고독」」「내일을 향해 「우리에게 내일은없다」」「이유없는 반항」」 「싸라」「이유없는 반항」」 강원도 삼척출신 (98573) 에 현주소 버지 박영진(56세)씨의 次男, 중2때 상경해 서 학교를 들어가게된다. 자기하게 제가꿈의 장식을하고 이름도 이국적인 상 점들, 그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종 레코드가게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이 들려오고 빵…찍…하고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음과 소리를 합해보면 내자신 興國에 와있는 듯 착각이 일어나고 만다. 그 연변에 깔린 음식점과 술집들을 지나노라면 「어서 옵쇼」하고 묘하게들려오는 허스키의 음성, 열굴을 들어보면 사춘기도 채지 나지않은 조그만 소년이 달걀 알고나면 더욱묘한 감정에 빠진다.

<41>

가위와 징과 피리의 그 소리들의 詩化를

□環 目

⊙論文=20枚內外
⊙小說=40枚 〃
⊙隨筆=15枚 〃
⊙ 詩 = 3편이내
⊙기타, 紀行文, 報告記등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수시로 접수하고있읍니다。(C건물 1층)

東大新聞社

원 고 모 집

여러분의 투고를 바랍니다

□短篇小說□

스모한 밤

白承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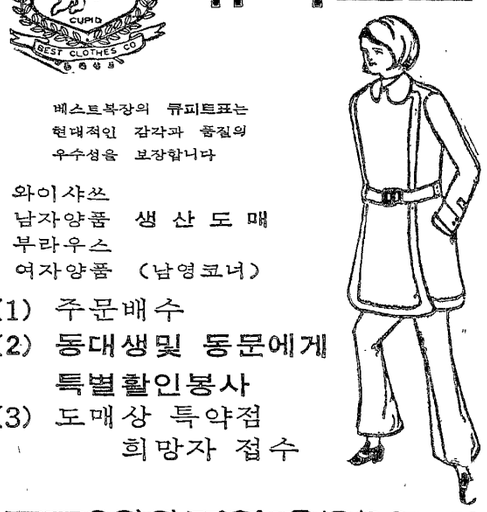
〈完〉

4月의 노래를……

아리

코스모스백화점

큐피드표



베스트복장의 큐피트표는
현대적인 감각과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합니다

와이샤쓰
남자양품 생 산 도 매
부라우스
여자양품 (남영코너)
(1) 주문배수
(2) 동대생및 동문에게 특별활인봉사
(3) 도매상 특약점 희망자 접수

본 사 시내 중구오장동69의 2 (오대양빌딩 5층)
베스트복장사 대표 권 태 현 (전정)
TEL 54~7 4 7 8

◉여자양품영업부(남영코너)
시내중구명동 2가83의 5
코스모스백화점 2층
(2420~5)
TEL ㉒6682

정형외과 미용외과

명도의원

院長 김 현 정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2-1
☎ ㉓ 6957 · 4338(UNESCO회관옆)

팝송 명곡 민요 **키타** 반주법 1개월 완성

가장 쉽고 짧은 기간에 당신의 취미 팝송기타 반주법을 배우시지 않으시렵니까?
기초부터 흥미있고 빠른 지도방법으로 최신 팝송·명곡·민요 (노래부르며) 70여곡을 능숙하게 연주하도록 지도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초보자 경험자 환영)
개인지도…피아노·크래식키타·쟤즈가요키타
관인 쟈니음악학원 ⑮9983
종로5가네거리 동대문쪽50m

C·C·B학원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美語무료공개강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매주토요일 오후2시~6시 (당일교재는 무료배부) 원장 Robert Bahk교수 직접열강
10여년 공부하여도 회화의 expression hearing understandig 등 되지않는 이유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3가315
㉕ 2970

개업15주년특별봉사
TV。냉장고。에어콘。 각종 전자제품
매매·교환·월부
기간 4月1日~4月30日
◎최고기술진으로 무료써비스 하여드립니다
◎최저가격·상품품질절대보증
※언제든지 왕림하여 안심하시고 구경하십시오
전자제품의 명문
동 아 전 파 사
세운상가 가동 라열 120호
TEL ㉒1458 ㉔3252

싸고 멋있는 대학생의 안식처!
독일식순생맥주집
뢰벤브로이
(사보이호텔 아래쪽)

美人會話

동대생및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구룹회화 ☆個人會話
美國人이 直接 講義함
TEL ㊹6879
㉓3130~9 교환337

안경대신 콘택트렌즈
●자외선을 막으며 눈을 보호하는 HANICON렌즈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며, 쓰기에 가장 편함
●전문의사의 정확한 검사하에 제작하므로 안심하고 온종일 사용할 수 있음。
●자세한 설명서 무료 우송함。
※사한 명칭이 있으니 『한일』을 확인 하십시요。
한일콘택트렌즈 서울·종로2가102-3 TEL. (75) 1518 (종로·아카데미극장 건너편)